

늘어만 가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분양가 규제 폐지·금융 지원 절실

전국 11만가구 돌파... 주택경기 침체 심화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1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2006년 이후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올해도 2만여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미분양 적체로 인한 아파트시장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1만2천25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8월(11만4천405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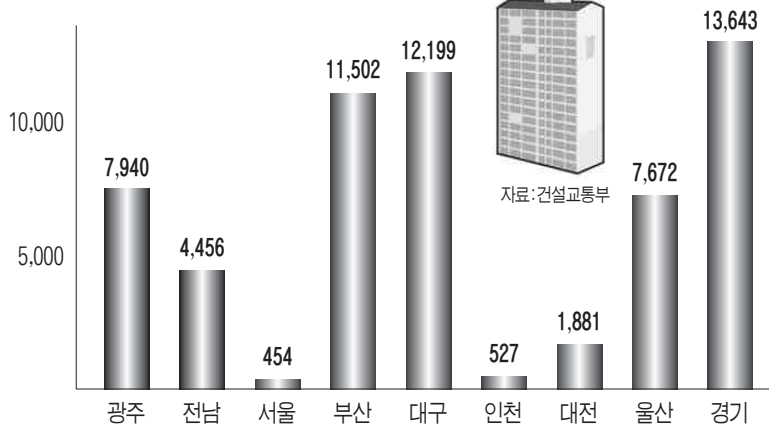
이 가운데 광주·전남에는 1만2천396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 이는 지역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규모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4천462가구)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일부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물량을 줄여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전국의 미분양은 20만가구를 훌쩍 넘었을 것

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실제 미분양은 2만가구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미분양이 급증한 것은 2006년 이후 계속된 지방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1~2년새 대규모 택지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집중된 데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말어내기식' 분양이 잇따른 것도 미분양 적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에서는 올해 2만878가구의 주택이 새로 쏟아질 예정이어서 지역 내 미분양 적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선 주택건설업계의 공급물량 조절과 함께 정부의 지방 주택경기 부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검토중인 부동산정책의 경우 지방시장 회복과는 거리가 크다는 점에서 서울·수

■ 2007년 시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가구)



도권과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수위는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용역을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표 조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 대부분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 경우 현행 6억원을 기준으로 한 중부세 과표 조정 대상이 거의

없는 데다 양도소득세 및 도심유역제한 완화 등의 정책이 부양책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치영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고사 위기로 몰린 지방의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과 함께 전매기간 완화나 민간주택 분양가 규제 폐지 등 실질적인 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역 백화점 설 매출 소폭 늘어

광주신세계·롯데 등 지난해보다 3~5% 증가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올해 설 매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지역 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설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1월24일부터 2월6일까지 14일간 설 매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2월4~17일)에 비해 5% 정도 증가했다.

매출증가를 이끈 10대 품목은 1위가 굴비였으며 한우·홍삼제품·와인·건강식품·생활용품·청과채·꽃감·양주·건과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굴비의 매출액은 품목별로

는 1위였지만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여파로 지난해 설에 비해 무려 15%나 감소했다.

광주신세계 김기봉 마케팅팀장은 "굴비에 대한 수요가 한우와 청과로 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설보다 매출액이 늘어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도 1월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15일간의 매출이 지난해(2월1~17일)에 비해 3%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의 매출증가는 청과와 정육 등의 품목이 주도한 가운데 건과·표고·꽃감 등 전통식품, 홍삼·꿀 등 건강식품, 웰빙열풍을 반영한 포

도주세트 등도 기여했다.

광주현대백화점은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매출이 30% 이상 늘었으나,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상품권 매출의 경우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대비 각각 17%, 롯데백화점이 5%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박주영 영업총괄팀장은 "이번 설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웰빙열풍이 지속됨에 따라 친환경 고급 선물세트의 수요가 부쩍 늘었다"면서 "아울러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구매성향도 최고급품과 5만원대 중저가 상품 등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光銀 '당선기원통장' 판매

광주은행은 국회의원 임후보자를 위한 선거관리 통장인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통장은 총선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예금주로 가입,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통장으로 오는 4월 9일까지 판매한다.

통장 가입자에게는 타행 송금수수료와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면제되며 선관위 제출용 입출금 거래내역 등 관련자료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선기원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포춘쿠키' 가져 가세요

10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플리자 앞에서 패션시계 브랜드 스와치가 '무자녀 생취시계' 출시를 기념해 과자속에 신년 운세 쪽지가 담긴 포춘쿠키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주택담보대출 8,300억 '주춤'

새해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8천3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평균 증가액 4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2006년의 월 평균 증가액 2조2천억원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월별로 보면 1월 8천억원에서 5월 마이너스 1조2천억원으로 순상환으로 돌아섰다가 6월 7천억원, 7월 1천억원, 8월 6천억원, 9월 4천억원, 10월 1조 원, 11월 1조5천억원, 12월 400억원 을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원 미만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작년 1인당 쇠고기 7.5kg 소비

국산보다 수입산 소비량 더 늘어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평균 7.5kg 정도의 쇠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9일 농협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 전체 쇠고기 소비량은 36만6천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6년의 33만1천보다 10%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국산 쇠고기 소비는 17만2천으로 1년동안 8.5% 증가했고, 수입산의 경우 12.6% 늘어난 19만4천이 소비됐다.

이에 따라 총 소비량 가운데 국산의 비중은 쇠고기 자급률은 46.9%를 기록, 2006년의 47.8%보다 떨어졌다.

쇠고기 자급률은 ▲2002년 36.6% ▲2003년 36.3% ▲2004년

44.2% ▲2005년 48.1% ▲2006년 47.8% ▲2007년 46.9% 등으로, 200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아울러 지난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대비 10.2% 많은 7.5kg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으로 캐나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전인 지난 2002년(8.5kg)과 2003년(8.1kg)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소비자 패널 정보 조사업체 'TNS코리아'가 20~50대가 가구주인 전국 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 집단의 달에 평균 1.3kg의 쇠고기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보다 2.5% 늘어난 량이다. /연합뉴스

호남권, 작년 기술보증기금 보증액 8천억

호남권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규모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술보증기금 광주기술평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권에 대한 기보의 총 보증액은 7천927억원으로, 2006년(7천520억원)에 비해 5.4%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보증 규모는 ▲서울·인천·경기권(5조7천405억

원) ▲부산·울산·경남권(2조490억원) ▲대구·경북권(1조1천433억원) ▲대전·충청권(1조1천299억원) 등을 크게 밑돈다.

기보측은 "호남권의 경우 기업 수와 규모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열세여서 보증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학·연구기관 고가장비 이용 쉬워진다

중기청, 지원 대상·규모 대폭 확대... 처리절차도 간소화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를 더욱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과 연구장

비를 공유하겠다고 클러스터를 구성해 신청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장비사용료의 6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지원 자격을 3천만원짜리 연구장비 50대 이상 보유에서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50대 이상으로, 참여 중소기업의 수도 15개사에서 10개사로 각각 낮췄다. 반면 장비사용료 명목의 지원금은 업체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별도의 운영비를 기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장비이용 절차도 기존 9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으며, 중소기업이 바우처(쿠폰)를 연중 수시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 대상 클러스터를 현 28개에서 50개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중요한 산학연 협력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베트남 국제결혼

국제결혼! 선택이 중요합니다

900만원내로 매달을 맞이하세요

062) 232-8966
010-5256-8966

아오자이국제결혼

난방기와 에어컨을 1대로...

난방비 1/3로 줄었다!

TEMPIA 063) 252-2900 090-252-7117